

문화와 예술의 교차로, 리옹

김남연 |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Laurent_Berthier

리옹의 역사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리옹은 1996년 G7이 열린 도시로도 기억되고 있다. 리옹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데에는 도시의 역사적인 중요성이 작용한 듯하다. 리옹은 로마제국의 힘이 닿기 전에 처음에는 켈트(Celte)가, 그 다음으로 골족(Gaulois)의 중요한 도시로 발전한 지역이기도 하다. ‘골(Gaule)의 수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옹은 로마시대에 골(갈리아) 지역으로 진출

하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기에 로마의 유적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결국 카이사르의 부하 무나티우스 플랑쿠스(Munatius Plancus)가 이 지역을 로마제국의 식민 도시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도시는 당시 이름(켈트의 태양신과 언덕의 합성어 룩두눔 ‘Lugdunum’)에서도 드러나듯이 골족과 켈트족의 복합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로마의 진출로 유럽의 중심문화를 접하게 된다. 기원전 43년 갈리아인의 중심도시로 성장한 리옹은 당시 로마의 군사 주둔지로 발전하여 리요네즈(Lyonnaise), 아키

텐느(Aquitaine), 벨지크(Belgique)로 진출하는 중심도시로 번영을 누렸다. 이 도시는 로마가 남쪽을 공략하기 위해 건설한 나르보네즈(Narbonnaise)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된 것이다. 2세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는 대주교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리옹의 종교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13세기에 기독교 전체를 아우르는 공의회가 두 차례나 열렸다는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후 1312년에는 프랑스에 합병되는데 이 시기부터 프랑스 중앙의 영향권 안에 속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한다. 리옹은 르네상스 도시로도 최전성기를 누렸다. 1600년 프랑스의 첫 번째 부르봉(Bourbon)가의 왕 앙리 4세(Henri IV, 1589~1610)가 왕비로 맞은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마리(Marie de Médicis)와 혼인할 때 성대한 결혼식을 바로 리옹에서 거행한 것을 보아도 당시 리옹의 위상은 짐작할 수 있다. 루이 14세의 기마상 또한 리옹의 벨쿠르 광장에 서게 되는데 이는 리옹이 명실상부한 파리의 제일 중요한 협력자라는 것을 의미한다.¹⁾ 리옹의 구시가지는 아직도 당시의 영화를 그 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시의 인구는 147만 2,500명(2008년)으로 인구가 80만 명에 이르는 마르세이유에 이어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로 되어 있지만, 근교와 위성도시를 합한 리옹 대도시권의 인구는 180만 명(2006년)으로 위성도시를 합한 마르세이유를 추월하고 파리 대도시권 다음인 프랑스의 두 번째 도시로 기록되어 있다. 리옹 사람들은 자신들

이 살고 있는 곳이 프랑스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자부심은 근거가 명확해 보인다. 리옹은 테제베(TGV)와 6번 고속도로(A6)를 통해서 파리 접근이 가장 빈번한 도시다. 그리고 현재 파리-리옹 축이 프랑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다. 리옹이 제2의 도시라는 것은 교통으로 보나 산업으로 보나 당연한 것 같다. 연간 52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리옹-사톨라스(Lyon-Satolas) 공항으로 국제 항공노선이 바로 연결되는 리옹은 테제베와 국철이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임에 틀림없다. 리옹은 론(Rhône)강과 손(Saône)강 사이에서 발달한 도시로 론강은 바로 라인강의 운하로 연결된다. 리옹은 공중과 육로뿐만이 아니고 물길로도 다른 유럽 도시와 직접 닿을 수 있다. 교류를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 도시는 경제나 산업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듯하다. 이렇게 하여 지중해와 북유럽 지역의 교차로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찬란했던 도시 리옹은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밀라노 등의 주요 대도시권과 유로라인 등을 통하여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만약 알프스에 스키를 타러 가거나,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이 여행의 주목적지거나, 독일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리옹에서 제네바까지 기차로 2시간)를 포함시킨 프랑스 여행을 떠난다면 굳이 파리를 거쳐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직접 리옹을 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1713년에 세워진 기마상은 혁명 당시 왕권의 상징물로 여겨져 민중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현재의 기마상은 1828년에 재건된 것임.



▲ 손강과 주변 모습

▲ 좁은 골목이 인상적인 리옹의 구시가지

▼ 언덕 위에 자리잡은 푸르비에르 대성당(© J.Leone)



건축물 공업과 인쇄술의 발달

리옹은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있지만 유럽 건축물 공업의 중심지라 불리는 만큼 건축물 공업은 중요하다. 리옹의 산업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리옹은 이 건축물 공업을 바탕으로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한 많은 의식 있는 노동자들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²⁾ 인쇄업도 크게 발달해 있다. 미술랭 가이드에 의하면 활판인쇄술은 1403년 한국에서 발명되었고, 1447년에는 독일의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가 시작했으며, 1485년에야 리옹에 정착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548년에 이르러서는 리옹에 400개에 가까운 인쇄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 프랑스 르네상스 문학의 금자탑을 세운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가 1532년 론 병원에 의사로 취직하여 리옹에 정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출판업이 성행했던 리옹이 바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라블레의 최대 걸작 「가르강튀아」가 이 시기에 리옹에서 출판되었다. 리옹은 문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전 세계에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루이 14세의 기마상이 있는 벨쿠르 광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리옹 국제공항의 이름이 리옹-사틀라스에서 리옹-생텍쥐페리(Lyon-Saint Exupéry)로 변경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전시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실종된 작가는 행동주의 문학으로 그 획을 그었다.⁴⁾ 리옹의 산업은 건축물 외에도 기계와 화학(특히 농화학) 그리고 합성섬유가 중요하다. 현재는 9

2) 1744년에도 건축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장기간 일어났음.
3) France, Michelin, 142쪽 참조.
4) 문학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에서 대단히 중요한 화성학을 완성한 장 필리프 라모도 리옹의 대성당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했음.

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주조기술, 기계, 철사 제조, 전기 제품 등의 야금술이 리옹 산업의 으뜸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모터의 3분의 1은 이 지역 생산품이라고 한다. 한 예로 현재 르노사에 합병된 리옹 소재의 베를리에(Berliet) 공장에서 생산된 대형 차량은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리옹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으로는 SEB가 유명하고 파스퇴르 메리의 연구소(Institut Pasteur Mérieux) 덕분에 리옹은 제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백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 밖의 3차 산업으로 은행, 보험업이 활발하다. 예전에는 크레디리요네(Crédit Lyonnais)가 국립 파리 은행(Banque Nationale de Paris)보다 자본금이 더 많았다고 한다. 리옹은 의학과 과학 연구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3개의 대학을 소유한 교육 도시 리옹에는 450개에 달하는 연구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리옹은 이렇게 미래를 향하고 있다. 2천 년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구시가지(Vieux Lyon)와 연필 모양을 한 크레디리요네 건물로 대표되는 상업도시로서의 신시가지가 모두 리옹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게다가 매년 12월 8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빛의 축제(Fête des lumières)가 리옹의 미래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빛의 도시, 리옹

뤼미에르(Lumière) 형제가 만든 시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로 촬영하여 상영한 세계 최초의 영화가 「리옹 뤼미에르 공장의 퇴근길」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영화가 최초로 상영된 곳은 파리였지만, 그 영화를 촬영한 기계는 리옹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브장송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리옹에 정착한 오귀스트(Auguste)와 루이(Louis) 뤼미에르는 영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사실 리옹은 영화의 탄생과 직접 관련된 도시이기 때문에 필자가 박사과정을 끝낸 리옹II 대학의 이름은 ‘뤼미에르’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보통명사 ‘lumière’는 빛이란 뜻이니 뤼미에르 형제가 영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다. 리옹은 빛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빛의 도시인 리옹이 빛의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 축제는 그 전통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세부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왼쪽에서 면제되는 것을 기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낸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왼쪽을 물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정식으로 1854년 12월 8일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8일을 성모의 무염수태(Immaculée conception)를 기념하는 날로 정했다. 여기에 중세에 만연했던 페스트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염원이 더해져 창문가에 촛불을 밝히는 풍습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후에 페스트가 완전히 물러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8일 각 가정에서 촛불을 밝혔다고 한다. 다시는 병이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염원이 불이 가진 정화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 것으로 보인다.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원하던 과거의 촛불은 이제 4일간의 현란한 빛 축제로 미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빛의 도시인 리옹은 빛의 축제 기간 동안 경관조명을 통해서 세계적 명물로 다시 태어난다.⁵⁾ 리옹의

5) 경관조명은 1667년 루이 14세가 도로 위에 등불을 설치한 것이 효시라고 함. 현대에는 1920년대 파리에서 역사적 건축물이나 기념물, 교량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야경을 아름답게 만들었음. 건물 조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프랑스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조명에도 참여함. 낮에는 지지 분하던 파리의 거리가 밤이 되면 다시 태어난다.

관광객 수는 축제가 생기기 이전과 비교하여 어마 어마하게 늘었다고 한다. 이제 리옹은 빛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유음식을 고수해 요리로도 유명

‘미식의 도시’라는 별명을 지닌 리옹은 당연히 요리로도 유명하다. 리옹의 구시가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파리보다 값은 저렴하지만, 절대로 음식의 질이나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장한다. 프랑스의 요리가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옹도 골족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프랑스가 서양요리의 종주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프랑스 음식에서 골족이 즐겨 먹던 고유음식은 돼지고기 가공식품(charcuterie)으로 우리나라의 순대처럼 생긴 음식인데 바로 리옹이 그 음식의 중심도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로마시대를 거쳤고, 한때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사라센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유음식을 고수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현재 프랑스 요리사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폴 보퀴즈(Paul Bocuse)는 리옹 시내에서 멀지 않은 손강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 대담에서 “요리분야에서 파리아말로 리옹의 주변도시가 되어간다.”고 좀 의외의 발언을 했다. 이런 표현은 리옹과 주변에 포진해 있는 트루아그로(Troisgros), 조르주 블랑(Georges Blanc), 장폴 라콩브(Jean-Paul Lacombe) 등을 보면 전혀 허황된 말은 아니고,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저변에는 모든 것의

중심인 파리에 대한 경계심을 읽어낼 수도 있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

리옹은 예로부터 파리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로마 시대에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결코 파리의 발달 속도에 비해 느리지 않았지만 차츰 파리에 밀려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 원인은 과거 농업이 힘의 원천이었던 시기에 파리에 있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파리 분지를 따라잡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⁶⁾ 실은 이러한 패배가 리옹의 경쟁력을 키웠다고 말하고 싶다. 리옹은 이렇게 파리에 패배하고도 견뎌내야 했으며, 로마의 침략을 감내했고, 사라센의 지배를 받은 시기가 있었지만 잘 견뎌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다시 일어난 리옹은 일종의 교류(communication)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다. 최악의 조건에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타인과의 교류를 이끌어 냈다. 타인의 힘에 완전히 죽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학위를 끝낸 리옹III 대학의 이름은 장 몰랭(Jean Moulin)이다. 표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국민적 영웅은 샤를르 드 골(Charles de Gaulle)이지만, 해외에서 투쟁한 드 골에 견줄 만한 인물이 있다. 국내에서 레지스탕스를 이끌던 장 몰랭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드골 못지않은 국민의 영웅으로 초대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의 애도문과 함께 1964년 영예의 전당인 팡테옹에 안장됐다. 파리가 아닌 리옹에서 결혼식을 올린 마리 드 메디치는 오스트리아인 어머니와 피렌체(이탈리아) 출신의 아

6) 프랑스빵이 세계 제일인 원인은 바로 파리 분지에서 산출되는 질 좋은 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다. 리옹이라는 도시는 교통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적 교차로가 실현되는 장소로는 파리보다 더 적절했던 것이다. 국제기구로는 유엔 다음으로 큰 조직인 국제경찰기구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의 본부가 리옹에 있다. 인터폴의 모체인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의 본부는 파리에 있었지만 기구를 더 확장하여 리옹으로 그 본부를 옮긴 것인데, 이는 유럽 연합의 중요한 기구가 파리나 베를린이 아닌 역사적인 의미에 기초한 도시들에 존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리옹은 다양한 지역의 교차로로 안성맞춤인 것이다. 이런 교차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리옹 사람들이 폐쇄적이라고 평가하지만 한번 사귀면 상당히 깊게 교우할 수 있는 특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소통의 기본을 잘 아는 사람들 같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집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만나서 사귀는 동안 서서히 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같다는 것이다. 🍷

사진제공: 프랑스관광청



- ▲ 루이 14세의 기마상
- ▲ 뤼미에르 형제 박물관
- ▼ 빛의 축제 모습

